



우석대, 이주민 생활지원 전문인력 55명 배출

우석대학교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군장대학교와 공동 운영하는 '이주민 생활지원사 1급 과정'을 마치고 수료생 55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과 양항숙 군장대학교 기획처장을 비롯한 양 대학 관계자,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과정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노동·학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3월 개강했다.

교육과정은 상호문화 이해, 외국인 노동 정책, 유학생 지원 제도, 심리·정서 지원, 법·제도 이해, 현장 대응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과정은 자격과 실무를 연계한 국내 최초의 이주민 생활지원사 교육과정으로, 2024년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공동 기획을 통해 시작했다. 2급 과정은 지난해 운영됐으며, 1급 과정은 올해 처음 진행됐다.

과정 설계에는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장 이승미 교수(아동사회복지학부)와 군장대학교 국제교류원 어학센터장 양소숙 교수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한편 수료생들은 향후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지원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석대학교와 군장대학교는 전북외국어지원봉사회, 한국외국인유학생봉사지원본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기관과 연계한 실습 및 현장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 소상공인연합회, 덕과면에 종합선물세트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는 지난 1월 31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밀가루 등으로 구성된 종합선물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종합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흥부골 발전협, 아양면에 식료품 꾸러미 기부

남원시 아양면 관계자는 흥부골 발전협의회 이경연 회장이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새해(祿)꾸러미 57상자(한가액 100만원)를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경연 발전협의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 북꾸러미는 떡국떡, 곱창, 누룽지 등 다양한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이에 아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팀(620-4091)은 1일 1가구 소분행정과 병행해 설 명절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농협조합운영협, 농심천심 실천 다짐

장수군조합운영협의회(의장 박정용) 장계농협 조합장 김용준 장수농협 조합장 송재근 무진강조합장 조합장, 정현주 농협장수군지부 지부장은 지난달 30일 농협 장수군지부 회의실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실천을 위한 조합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연초 기부 참여 확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2월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협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설 명절 전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200여 전주 시민과 함께한 공감·약속의 시간

송재영 출판기념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마를 준비 중인 송재영 작가의 신작 에세이 '전주가 설레기 시작했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1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기잡놀이전수관 계동극장에서 시민 200여명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장은 책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전주시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공감의 공간으로 채워졌다. 행사 시작을 알린 농악대의 힘찬 울림은 오랜 시간 정체돼 있던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듯했고,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설렘이 자연스럽게 번졌다.

참석자들은 "작가가 전주시의 골목과 번두리를 직접 걸으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써 내려간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간다"며 "전주를 사랑하는 한 시민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가 설레기 시작했다'는 송 작가가 2025년 한 해 동안 전주시 곳곳을 발로 누비며 보고 느낀 풍경과 사연을 담아낸 기록이다. 여기에 전주에서 살아온 80여 년 세월 속에서 겪어온 삶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이 책은 도시를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주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다.

송 작가는 책을 통해 "전주를 어떻게 하면 설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왔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전주



는 설레 수 있을지를 묻는 도시가 아니라, 이미 설레기 시작한 도시"라며 "그 변화의 주인공은 행정도 정치도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책은 거창한 개발 논리나 구호 대신 일상의 언어로 전주의 오늘을 기록하며 도시의 미래를 시민의 삶과 연결 짓는다. 송 작가는 "전주는 누군가가 대신 바꿔주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리며 새로 지어가는 도시"라며 "이 책이 그 첫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작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전주시 삼천1·2·3동과 효자동을 지역구로 전북도의회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고민과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정치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전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해진 일산 속에서 설렘을 있고 살아간 시민들에게 이날 출판기념회는 전주시는 도시를 통해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남게 되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 2026년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김제시는 지난달 29일 2026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농업인단체 및 농기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과 운영계획, 농반기 주말근무, 임대농기계 현장배달서비스, 임대료 등 2026년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자체재원 12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장비와 농업인의 수요에 맞춘 활용도 높은 트랙터, 굴삭기, 집압기 등 농업기계 36종 130대를 심의회를 거쳐 구입할 예정이다.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68종 1,63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임대 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도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과 가을철에 농반기 주말근무를 추진해 농기계 사고예방 홍보책자와 이륜차 스티커도 배부할 계획이며, 임대료 50%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제=박노태 기자



고창 고수면 농지위,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기탁

고창군 고수면 농지위원회(위원장 이창범)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연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상생 하려는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 전액은 '고수면 복지허브와 기금'으로 예치되어, 향후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고수면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농업인,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시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관리 기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로,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전극) 3종이며,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10%)의 90%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단 19세 이상은 본인부담금(30%) 중 20%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12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 방문보건팀(063-620-7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 김성진 방문보건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필수 관리기기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진청, 청년양봉인 소통 간담회

농촌진흥청이 청년 양봉인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양봉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일 청사 내 농업생물부 중회의실에서 청년양봉인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양봉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심 한국양봉협회와 2022년 11월 체결한 함께하는 양봉 프로그램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년양봉인 육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세 기관은 청년 세대의 양봉산업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청년양봉인을 선발해 기술교육과 현장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안성관랜드에서 청년양봉인 26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심 아산공장과 한국양봉협회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일방향 교육·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양봉인의 사례 발표 중심으로 진행됐다. 로열젤리 생산 수장법 활용, 체험형 양봉 수벌번데기 생산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양봉인들이 현장에서 시도한 새로운 양봉 방식과 확산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회에서는 양봉 경영 과정에서 겪은 기술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 청년양봉인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나눴다. 농촌진흥청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연구과제 기획과 기술 개발 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KCC, 완주군에 이웃사랑 성금 3000만원 쾌척

국내 종합화학기업 (주)KCC(대표이사 정몽진)가 새해를 맞아 완주군에 이웃사랑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2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문병원 공작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영규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기탁은 (주)KCC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KCC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금을 전달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층 지원에 힘써왔으며, 기업의 강점을 살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개선 등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친환경술매포크 영농조합, 완주군에 성금 기탁

친환경술매포크 영농조합 법인(대표 김인철)이 새해를 맞아 완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2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김인철 대표, 황동현 감사, 조동선 이사, 김영기 완주군노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은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정기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은 최근 2년간 설·추석 명절에 맞춰 회당 200만 원씩 연 2회 기탁하는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친환경술매포크 영농조합법인은 지역 양돈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에스제이바이오, 무주군립요양병원에 마스크 기부

(주)에스제이바이오가 최근 무주군립요양병원에 '싱그래미 마스크 4만장(1,400만원 상당)'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신항철 대표는 "마스크가 입원 어르신들의 폐유와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무주군립요양병원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다. (주)에스제이바이오는 사회적 기업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꾸준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소방서, '현장 밀착형 쇼츠' 교육 도입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가 급증하는 캠퍼런스 출동 수요에 맞춰 대원들의 구급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캠퍼스와 앰블런스의 합성어인 '캠퍼런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원들의 처치 숙련도를 향상 평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퍼런스 원포인트 현장 밀착 쇼츠는 60초 분량의 영상을 활용한 초단편 교육과 즉시 실습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대원들은 핵심 영상을 시청한 직후 캠퍼런스에 적재된 실제 장비를 활용해 핸드온(Hands-on) 훈련을 병행하며 실전 대응력을 몸소 체득하게 된다.

교육은 동상, 심정지, 운열질환 등 현장 시급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월별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